

#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송 인 희\*\*

## 목 차

- I. 머리말
- II. 1848년 진찬의궤의 준화(樽花) 관련 내용
- III. 1848년 진찬의 당화준과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  
연향의 내하품
- IV. 1848년 진찬의궤 속 당화준과 동시기 도자취향의  
연관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 19세기 전반 조선의 왕실 연향에는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왕권 강화의 노력이 새로운 정재(呈才)로 가시화 된 한편, 연향의 상차림 규모와 기물 사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물의 변화는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재질과 조형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거나, 중국산 자기로 추정되는 당기(唐器)의 사용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국자기의 애호와 사치 풍조가 확산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20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의궤와 공예품》(2020년 11월 23일 개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宋仁熙,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강사, ambrossia@hanmail.net

투고일: 2021. 4. 28. 심사완료일: 2021. 6. 3. 게재확정일: 2021. 6. 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81>

19세기 전반 왕실 연향에서의 중국 자기류 사용 증가와 관련해 주목되어 온 것은 1828년부터 새로운 정제 일부에서 꽃을 담은 용기로 쓰이다가, 1848년에 이르러 연회의 중심 영역인 전각 앞을 장식하는 기물로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1848년 이래 ‘당화준(唐畫樽)’의 사용은 이제까지 의궤 도식의 분석을 위주로 연회의 성대함을 보이는 화려한 기물 정도로 파악되어 왔지만, 조선시대 내내 권위의 상징으로 왕실 연회에 자리했던 용준(龍樽)을 대신한 만큼 그 사용에 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1848년 진찬에 당화준이 중심적인 장식물로 나타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의궤 뿐 아니라 19세기 전반 연향 관련 의궤를 재검토했고, 전반적인 기물의 사용상 내에서 당화준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식(圖式)에 보이는 문양의 특징을 동시기 조선과 중국의 도자 문화와 함께 고찰해 그 의미를 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의 고급 기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동시에, 19세기 조선의 물질문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조선 왕실 연향,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 수입 도자기, 용준(龍樽), 화당초문(花唐草文), 운룡문(雲龍文), 관요(官窯), 물질문화

## I. 머리말

헌종14년인 1848년 무신년,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 김씨(1789~1857)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3월 17일과 19일에 걸쳐 창경궁 통명전에서 네 차례의 진찬연이 열렸다. 진찬의 준비와 실행, 진찬 이후 포상과 의궤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의궤에 기록되었고, 진찬 장면은 그림으로도 그려져 병풍으로 제작되었다.<sup>1)</sup>

1) 1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의궤는 순조9년(1809) 『惠慶宮進饌所儀軌』(進表裏儀軌), 순조29년(1827) 『慈慶殿進爵定例儀軌』, 순조28년(1828) 『戊子進爵儀軌』, 순조29(1829) 『己丑進饌儀軌』, 헌종14년(1848) 『戊申進饌儀軌』가 남아 있다. 기록화로는 <己丑進饌圖屏>과 <戊申進饌圖屏>이 전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의궤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의궤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전자판이다. 『戊申進饌儀軌』(奎143

무신년 진찬을 포함해 19세기 전반의 왕실 연향은 남아 있는 의례와 기록화의 분석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축적되었다. 1828년 이후의 의례를 통해 순조와 효명세자, 헌종대에 걸쳐 이루어진 왕권 강화의 노력이 새로운 정재(呈才)의 실행으로 가시화된 양상이 드러나는 한편,<sup>2)</sup> 연향의 음식상 규모가 증가하고 참석자를 위한 기물 사용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sup> 그 중에서도 연향에 사용되는 기물의 변화는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기물의 재질과 조형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일련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거나,<sup>4)</sup> 중국산 자기로 추정되는 당기(唐器)의 사용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18세기 이후 중국 자기의 애호와 사치 풍조가 확산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sup>5)</sup>

- 
- 72), 『慈慶殿進爵定例儀軌』(奎14535), 『己丑進饌儀軌』(奎14370), 『戊子進爵儀軌』(奎14364).
- 2) 조경아, 「순조대 효명세자 출製 呈才-‘예제’의 범주 및 정재 창작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1, 한국무용사학회, 2003a, 17~38쪽; 同著, 「純祖代 呈才 創作樣相-중국 문헌의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31, 한국음악사학회, 2003b, 273~302쪽 등.
- 3) 김미경,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29~44쪽; 同著,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 미술사』 33,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 299~307쪽;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14~65쪽;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4, 114~118쪽;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 본 연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127~164쪽; 김은경, 「朝鮮後期 清代 瑤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8, 111~113쪽;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5, 2018, 247~276쪽 등.
- 4) 정희정, 위의 논문, 164쪽; 이아름·이은주, 위의 논문, 274쪽.
- 5) 김미경, 위의 논문, 2006, 14쪽; 同著, 위의 논문, 2009, 294~295쪽; 신승인, 위의 논문, 2012, 42~51쪽; 최경화, 위의 논문, 2014, 118쪽.

19세기 전반 왕실 연향에서 중국 자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주목된 것은 새로운 정재의 일부 및 연향의 중심 권역을 장식하는 기물로 당화기(唐畫器)가 등장했다는 점이었다. 1828년 진작에서 새로운 정재의 화준(花樽)으로 출현한 이후, 1848년에 이르러 ‘당화준(唐畫樽)’은 연회의 중심적인 장식물로 전각 앞에 배설되어 19세기 후반에도 그 사용이 유지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의궤 도식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설명되어 온 바와 같다. 다만, 이제까지의 관점에서 당화준은 대개 왕실 연회의 성대함을 보이기 위한 화려한 기물 정도로만 파악되었고, 도식 외에 의궤 내 다른 문서항목의 관련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어 그 사용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권위의 상징으로 왕실 연회에 자리했던 용준(龍樽)을 대신한 만큼, 1848년 이래 중심 권역을 차지한 당화준은 그 사용을 여러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1848년 진찬의 중심적인 장식물로 당화준이 나타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의궤 뿐 아니라 19세기 전반 연향 관련 의궤 내용을 재검토하고 연향용 기물의 전반적인 진배 상황 속에서 당화준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도식(圖式)에 보이는 문양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동시기 조선과 중국의 도자문화와 함께 고찰해 기물 사용의 의의를 재조명해보겠다.

## Ⅱ. 1848년 진찬의궤의 준화(樽花) 관련 내용

1848년 진찬은 3월 17일 오전 5~7시 해당하는 묘시(卯時)에 창경궁의 내전인 통명전에서 대왕대비전에 내진찬을 올렸고, 같은 밤 9~11시에 해당하는 이경(二更)에 통명전에서 야진찬을 설행했다. 또, 이틀 후인 3월 19일 묘시에 대전이 주빈이 되는 회작(會酌)이 통명전에서 설행되었고, 같은 날

이경에 통명전에서 야연을 설행했다.<sup>6)</sup> 준화의 사용은 17일 통명전 정일 진찬과 야진찬의 반차도, 19일 익일 회작과 익일 야연의 반차도에 모두 통명전 앞에 양측으로 배설된 것이 표기되어 있으며, 진찬도에도 역시 정일 진찬과 야진찬, 익일 회작과 익일 야연에 모두 그려져 있다. 다만, 내진찬이었던 정일 진찬과 야진찬에서는 주림 안쪽에, 익일 회작과 야연에서는 주림 없이 열린 공간에 놓인 점이 다를 뿐이다.

준화의 배설 상황은 의주(儀註)의 통명전진찬의(通明殿進饌儀)에서 진찬 소용품을 하루 전날 설치하며, 대왕대비전좌는 통명전 가운데 북벽에 남쪽을 향하도록 하고 준화를 주림 내 계단 위 동쪽과 서쪽에 둔다고 한 것에서도 파악된다. 아울러, 이때 어좌는 주림 바깥 서쪽 계단 위 서쪽 가까운 방향으로 동쪽을 향하도록 한다고도 적었다.<sup>7)</sup> 이에 비해, 같은 날 야진찬에 대한 의주에서는 도식에 준화의 배설을 표기한 것과 달리 별도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통명전익일회작의(通明殿翌日會酌儀)에서는 대전이 주빈이 되므로 당일 통명전 전면 처마의 주림을 거두어 서쪽 계단위로 옮기면서 준화 배설은 거듭해 쓰고, 어좌는 전각 내 북벽에 남쪽을 향하도록 한다고 적었다.<sup>8)</sup> 같은 날 야연에 대한 의주 역시 반차도와 야연도에는 준화 배설이 표기되었지만 별도로 내용을 적지는 않았다.

준화의 모습은 반차도와 진찬도 외에 채화도(彩花圖)의 도식에서 상세히 확인된다. 사권화(絲圈花)와 수파련(水波蓮) 사이에 준화(樽花)로 수록된 도식에는 관례적인 모습의 꽃나무와 새로운 형식의 화준이 공존하고 있다. 꽃나무의 모습은 『원행을묘정리의궤』나 1829년 기축년 진찬의례의 도식과

6) 『戊申進饌儀軌』 卷首, 擇日, “大王大妃殿內進饌正日三月十七日卯時通明殿設行, 夜進饌同日二更通明殿設行, 大殿會酌三月十九日卯時通明殿設行, 夜讌同日二更通明殿設行…”

7) 『戊申進饌儀軌』 卷一, 儀註 通明殿進饌儀, “前一日設, 大王大妃殿座於通明殿中北壁南向…又設樽花於簾內階上東西設, 殿下座於簾外西階上近西東向…”

8) 『戊申進饌儀軌』 卷一, 儀註 通明殿翌日會酌儀, “其日, 撤通明殿前簾移設於西階上, 樽花排設仍用, 御座於殿內北壁南向…”

도 유사해 조선후기의 전형화된 준화 도식으로 확인된다.<sup>9)</sup> 이에 비해, 화준



도 1. 『戊申進饌儀軌』(1848)  
‘梅花’(세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은 형태와 문양의 측면에서 앞 시기의 전통적인 용준과는 전혀 다르다(도 1). 형태면에서는 구연이 넓고 경부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견부에서 서서히 벌어지며 동체 중앙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저부 가까이에서 다시 벌어지는, 소위 ‘S’자형의 굴곡을 이루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장(細長)한 모습이다. 장식면에서는 전면에 꽃과 넝쿨이 뒤엉킨 화당초문(花唐草文)이 가득하고, 경부에는 박취 아래 쌍희자(‘囍’) 무늬가 있다. 동체 가운데에는 중심 문양으로 만개한 연화문을 넣었고 저부 가까이에는

연판문(蓮瓣文)을 돌렸다. 유사한 형태의 화준이 1828년 무자년 진작의례에서 새로 창제된 정재 중 하나인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을 위한 모란화준(牡丹花樽)의 기물로 수록된 바 있는데, 1828년 화준 역시 연꽃과 넝쿨무늬가 어우러져 전면을 가득 시문한 것으로 보이지만, 1848년 준화 도식에서만큼

9) 19세기 전반 준화 내 꽃나무의 모습 중, 1829년 6월에 자경전에서 열린 내진찬 관련 내용을 기록한 『기축진찬의례』의 권수 부편(附編)에 별가화(別假花)라는 이름으로 실린 도식에는 서로 마주 보는 두 마리의 학이 꽃나무 꼭대기를 장식하며 예외적으로 다소 구별되게 나타나는데, 같은 부편 도식 중 내진찬과 야진찬의 반차도 및 진찬도에 준화가 보이지 않고, 의례 내 부편에 수록된 진찬시배설위차(進饌時排設位次)에도 준화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가화로 수록된 준화의 실제 배설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세부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동일 기물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준화에 대한 언급은 배설(排設)과 악기풍물(樂器風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사용 기물이 ‘당화준’임을 명시했다. 먼저, 배설에서는 ‘통명진찬시배설위차’에 가장 자세한 설명이 확인된다. 주변인 대왕대비전을 위한 배설품으로 준화 1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구성에 대해 주칠준대(樽臺) 2좌는 본소, 즉 진찬소에서 준비하고 당화준 1쌍은 내하하며, 안에 담을 백미 1석은 사도시에서 진배하고 홍도(紅桃) 1본과 벽도(碧桃) 1본 및 묶어둘 남홍수주(藍紅水紬) 각 2필은 모두 진찬소에서 준비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sup>10)</sup> 이후 ‘야진찬시배설위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왕대비전에 준화 1쌍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홍도 1본과 벽도 1본, 준대를 갖춘다는 내용만 언급했다. 이후 대전이 주빈이 되는 ‘익일회작시배설’과 ‘익일야연시배설’에서 준화 1쌍은 어좌 내 배설로 포함된 가운데, 구성물에 대해서는 야진찬과 동일하게 간단히 적었다. 한편, 악기풍물에서는 준화 1쌍 소입 물목으로 준화 2티는 사서 쓰고 내하하는 당가화(唐假花) 300지를 더하여 꽃으며, 당채화준(唐彩畫樽) 2좌도 내하한다는 등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1848년 진찬의 화준은 중국 기물로 색채가 더해진 화려한 모습이며 내하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진찬에서 준화의 기물로 당화준이 내하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 『戊申進饌儀軌』卷二, 排設 通明殿進饌時排設位次, “樽花一雙, 朱漆樽臺二坐, 本所措備, 唐畫樽一雙, 內下, 所盛白米一石, 司饗寺, 紅桃一本, 碧桃一本, 維結藍紅水紬各二疋, 並本所措備…”

11) 『戊申進饌儀軌』卷三, 樂器風物, “樽花一雙所入, 樽花二朶, 買用, 內下唐假花三百枝添插, 唐彩畫樽二坐, 內下…”

### Ⅲ. 1848년 진찬의 당회준과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 연향의 내하품

#### 1. 찬품(饌品)에 나타난 내하 양상

1848년 진찬을 총괄한 것은 총위영(總衛營)에 설치한 진찬소였고,<sup>12)</sup> 실제적으로 진찬을 준비한 것은 내숙설소(內熟設所)와 주원숙설소(廚院熟設所)였다. 내숙설소는 추경원(秋景苑)에 두고 ‘통명전상호일진별찬’과 ‘통명전정일진찬’, ‘통명전야진찬’과 ‘통명전익일회작’, ‘통명전익일야연’ 등 주요 진찬을 모두 담당했다. 주원숙설소는 주자소(鑄字所)에 두고, ‘통명전정일진별행과’를 담당했다.

연향용 기물의 내역을 기록한 자료 중, 찬품에서는 상차림의 기물 사용 양상 및 진배처를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1848년 진찬의 그릇 수는 1828년 무자년 순원왕후의 40세 생일을 경축해 2월에 열린 자경전 진작에서 올린 것, 그리고 1829년 기축년 순조의 보령(寶齡) 40세와 왕위 등극 30주년을 기념해 2월 자경전에서 열린 진찬에 올린 것과 비교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주요 찬안의 규모는 대동소이하다.<sup>14)</sup> 이는 1848년 준비 과정에서 1828년과 1829년 연향의 예를 참고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특히 1829년의 내용이 주요 참고

12) 『戊申進饌儀軌』 卷首, 座目, “設進饌所于總衛營”

13) 이하 1848년 및 1828년과 1829년 연향 의궤의 찬품에 기록된 기명 관련 내용은 [별첨] 1~3 참고. 별첨한 표에는 기물의 명칭과 지칭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록에 나타난 한자를 그대로 수록했음을 밝혀둔다.

14) 예를 들어, 주빈에게 올리는 진어찬안(進御饌案)의 경우, 1848년 통명전 정일진찬에서 대왕대비전 진어찬안은 45기였고, 1828년 자경전 정일진작의 대전과 중궁전 진어찬안은 각 44기, 1829년 자경전 진찬의 대전 진어찬안은 46기였다. 야진찬의 경우, 1848년 통명전 야진찬에서 대왕대비전 진어찬안은 22기였고, 1829년 자경전 야진찬에서 대전 진어찬안 역시 22기였다. 1828년 자경전 야진별반과(夜進別盤果)에서는 대전 및 중궁전 진어반과로 각 20기가 올랐다.

자료가 되었다.<sup>15)</sup>

사용 기명의 종류를 살펴보면, 1828년 2월의 경우 진작 당일 대전과 중궁 전에는 진어찬안에 유기와 당화기, 야진별반과에서 대전에 당화기를 올린 외에는 갑번자기를 썼고, 세자와 빈궁, 명온공주·숙선옹주·복온공주상에는 모두 갑번자기가 올랐다. 같은 해 6월 연경당 진작에서는 대전과 중궁전의 진어찬안과 소반과, 야진별반과에 당화기를, 나머지 상에는 갑번자기를 썼고, 세자와 빈궁에는 모두 갑번자기를, 명온공주 이하로는 당사기(唐砂器)를 썼다. 1829년의 경우 2월에는 대전은 당화기와 유기를, 내진현과 세자 및 빈궁, 명온공주는 당화기를 쓴데 비해, 6월에는 대전과 세자궁의 기명은 주로 당화기로, 세자빈궁 이하는 갑번자기로 기록했다. 1848년에는 정일 진찬에서 대왕대비전과 대전의 진어별찬안과 야진찬에는 유기와 당화기를 썼고 그 외 진어찬안 이하 미수, 소선, 대선, 염수 등의 기명은 대왕대비전과 대전, 중궁전, 순화궁 모두 갑번자기로 기록했다.

기명의 진배는 연향 담당처에 따라 구별되어 기본적으로 내숙설소가 담당 한 연향의 고급 기명은 내하품으로 구성하고 주원숙설소가 담당한 연향의 고급 기명은 사용원이 진배했다. 예를 들어, 1828년 내숙설소에서 담당한 자경정전일진작과 야진별반과, 익일회작의 기명은 기본적으로 내하품이었고, 신하들의 상에는 호조에서 진배한 자기가 올랐다. 다만, 익일 회작에서 대전과 중궁전, 세자궁의 미수에만 사용원이 진배한 갑번자기가 올랐을 뿐이다. 1829년 진찬에서는 내숙설소가 담당한 2월의 자경진진찬과 자경전야진찬, 자경전익일회작 및 6월의 자경진진찬과 야진찬에서의 그릇은 당화기와 갑번자기로 모두 내하품이었고, 신하들에게 내리는 음식상에서의 고족자기

15) 『戊申進饌儀軌』卷一, 傳教 丁未 十二月十日, “口傳下教曰, 今番進饌時, 大王大妃殿進爵, 以三爵磨鍊, 味數以三味磨鍊, 侍座則各以一味磨鍊, 而每味三器爲之, 自本所舉行大小膳, 依戊子年例…”; 丁未 十二月二十一日, “口傳下教曰, 進味數大小膳已有磨鍊矣, 大王大妃殿進鹽水進湯進饅頭進茶之節, 並依己丑年例爲之…”; 戊申 二月二十三日, “口傳下教曰, 翌日會酌儀節參互己丑年例磨鍊…”

는 모두 호조에서 진배했다. 이에 비해, 1848년 진찬에서는 주빈인 대왕대비전의 그릇으로 내하품과 주원, 즉 사용원이 진배한 것이 섞였다. 이 중, 당화기는 모두 내하품이었지만, 정일 진찬 때 대왕대비전의 진어찬안과 미수, 염수, 탕과 만두 등의 갑번자기는 내하, 소선과 대선의 갑번자기는 사용원이 진배했다. 대전과 중궁전, 순화궁의 그릇은 모두 내하품이었다. 신하들에게 내리는 음식상의 그릇은 신분에 따라 내하품 또는 사기전에서 진배한 것이었다.

한편, 1848년 진찬에서 주원숙설소가 담당한 통명전정일진별행과의 경우에는 공조에서 진배한 유기 외에 자기는 모두 주원, 즉 사용원이 진배했다. 주원숙설소가 담당하는 연향에서 사용원 자기가 쓰인 것은 1828년 2월 진작과 1829년 진찬에서도 같았다. 1829년 2월 주원외숙설소가 담당한 명정전진찬에서도 대전과 세자궁에 올린 자기는 모두 사용원이 진배했으며, 신하들의 음식상에 올린 고죽자기는 호조에서 진배했다. 이는 같은 해 2월 진찬에서 주원내숙설소가 담당한 자경전정일진별행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전과 세자 및 빈궁, 명은공주의 자기는 모두 사용원이 진배했고, 익일회작진미수에서 세자궁의 미수와 진탕, 진만두상에 올린 자기 역시 사용원이 준비했다.

그 외, 내숙설소와 주원숙설소의 구별 없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는데, 차를 올릴 때의 다관 등은 모두 은기로, 내하품이었다. 1828년 2월과 1829년 2월에 주원숙설소가 담당한 자경전정일진별행과에서 차를 올렸고, 1848년에는 내숙설소가 담당한 정일 진찬과 야진찬, 익일 회작 및 야연에서 모두 차를 올렸다. 1828년과 1829년에는 기록상 은다관만 나타났지만, 1848년 기록에는 은다관과 은다종을 함께 적은 정도만 다를 뿐이다.

내숙설소가 담당한 연향에서 당화기는 모두 내하품이고, 갑번자기 역시 주로 내하품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19세기 전반 왕실용 그릇으로 일반적 인 궁내 소용품과 구별되는 고급 자기류에 대한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높았고, 왕실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기명을 갖추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28년과 1829년 찬품 서두에 부기한 내용에 따르면, 찬품과

미수의 그릇 수는 섭정하는 왕세자의 명령에 따라 마련했으며, 내숙설소는 자내(自內)에서<sup>16)</sup> 조처하고 척량(尺量)을 헤아려 거행하며, 주원내외숙설소는 본원, 즉 주원이 왕세자의 재가로 조처해 물종을 규칙대로 거행한다고 적었다.<sup>17)</sup> 내숙설소와 주원숙설소는 각기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고,<sup>18)</sup> 소용 자기류의 경우에도 내숙설소 담당에는 내하품을, 주원숙설소 담당에는 사용원 진배품을 쓰는 것이 기본이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준비 단계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고급 자기류에 대한 왕실의 사용 의지와 관련해, 1848년 진찬이 내진찬으로 준비되면서 내숙설소를 진찬소 산하에 두고 진찬소는 총위영에 설치하는 한편, 왕실 재정의 유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찬품에 따르면, 찬품과 미수, 기수는 모두 품지(稟旨)에 따랐고, 주원숙설소는 1829년과 마찬가지로 주원이 계하(啓下)를 통해 규칙대로 거행했지만, 내숙설소는 진찬소에서 조처하도록 한 것이 1828년과 1829년에 자내에서 조처한 것과 달랐다.<sup>19)</sup> 1848년 내숙설소를 진찬소 산하에 둔 것과 관련해, 진찬소를

16) ‘자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내(大內)’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왕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에서 왕의 소유 또는 왕의 관할을 나타내는 대내의 주재자로 왕과 왕비를 포괄할 수 있다. 김종태, 「궁궐 공간 표현 용어의 가변성-왕의 사적 공간 ‘대내’와 ‘자내’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8, 국립고궁박물관, 2015, 31~32쪽.

17) 『戊子進爵儀軌』卷二, 饌品, “饌品味數器數並稟令磨鍊 內熟設所 自內措備出尺量舉行 廚院熟設所 自本院申目達下措備物種依式舉行”; 『己丑進饌儀軌』卷二 饌品, “饌品味數器數並稟令磨鍊 內熟設所 自內措備出尺量舉行 廚院內外熟設所 自本院達下措備物種依式舉行”

18) 1829년 진찬의 경우 주원의숙설소에서 외진찬에 해당하는 명정전진찬을 준비하고 내숙설소에서는 내진찬인 자경전정일진찬과 야진찬, 익일회작을 맡았는데, 이때 내숙설소에서는 자경전정일진찬의 기본 진찬안을 맡고 별도로 주원내숙설소를 두어 자경전정일진별행과와 함께 미수와 염수, 소선, 진탕, 진만두, 진다 등을 맡았다.

19) 『戊申進饌儀軌』卷二, 饌品, “饌品味數器數並稟旨磨鍊, 內熟設所, 自進饌所措備出尺量舉行…廚院熟設所, 自本院啓目啓下捧甘取用依式舉行”

총위영에 설치한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총위영은 헌종이 왕의 숙위를 비롯해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군영으로, 1846년 8월부터 1849년 6월까지 약 3년간 유지되었다.<sup>20)</sup> 1828년과 1829년에 내하로 기록된 부분들이 1848년에는 총위영으로 나타나는데, 진찬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대내(大內)의 의도를 전달하고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고 여겨진다. 진찬소를 총위영에 설치함으로써 진연 대부분을 담당한 내숙설소를 관리한 것을 비롯해, 내하한 물품의 반환 역시 총위영이 봉수(逢授)했다.<sup>21)</sup> 내하품의 관리 구분은 1848년 의궤의 배설 기록 중에도 나타나는데, 진찬의 내하 물품을 총위영이 봉수하도록 한 것에 비해 3월 19일 야연이 과한 뒤 배설 물종의 철거를 논한 감결(甘結)에는 각사 원역과 각 공계인(貢契人)이 통화문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면서 유관처에는 사용원과 반사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sup>22)</sup> 또, 재용에서는 1848년 진연을 위해 옮겨온 돈의 대부분도 총위영에서 조달한 것으로 기록했다. 총 27,623량 7전 2푼 중에서 총위영이 25,686량 9전 7푼 등을, 호조가 쌀 100석의 절전(折錢)으로 400량, 병조가 1,500량을 조달한 것으로 적었고, 이 중 70% 가량인 17,282량 4전 9푼을 내숙설소 및 관련 비용으로 지출해,<sup>23)</sup> 1848년 진찬이 총위영의 인력과

20) 『憲宗實錄』 12年 8月 5日, “丁巳教曰 “宿衛之疎虞, 莫甚於近日, 不得不變通. 前亦有已例, 革摠戎廳爲總衛營, 使之分番入直於禁中, 以嚴宿衛, 凡百節目, 令廟堂, 從長磨鍊啓下.” 총위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배항섭,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2002, 32~38쪽 참고.

21) 『戊申進饌儀軌』 卷二, 排設, “…以上正日翌日排設所用, 內下各種中, 揮巾三件函具, 匙櫟三件櫃具, 用後還爲內入, 其外各種逢授總衛營”

22) 『戊申進饌儀軌』 卷二, 甘結 戊申 三月十九日, “今日夜讌罷後, 排設物種撤去次, 各司員役各貢契人不離等, 待于通化門外事. 司饗院, 尙衣院, 濟用監, 長興庫, 排設房, 書房色, 儀仗庫, 盤砂器契”

23) 『戊申進饌儀軌』 卷三, 財用, “移來錢, 總衛營, 錢二萬五千六百八十六兩九錢七分, 爐炭七十三石七斗五升折錢三十六兩七錢五分, 戶曹米一百石折錢四百兩, 兵曹錢一千五百兩, 二萬七千六百二十三兩七錢二分內…內熟設所, 各種價錢及熟手食價募軍雇價並錢一萬七千二百八十二兩四錢九分…”

물력을 바탕으로 왕실이 지향한 연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점을 살펴볼 수 있다.<sup>24)</sup>

한편, 1848년 진찬에서는 내숙설소의 담당임에도 그릇 일부를 주원, 즉 사용원이 보충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 내숙설소가 담당한 연향에 주로 내하한 당화기와 갑번자기가 올랐지만, 정일 진찬의 대왕대비전 대선과 소선에는 주원에서 진배한 갑번자기가 오른 것이다. 이는 1828년 2월 자경전익일 회작에서 대전과 중궁전, 세자궁 미수의 갑번자기를 주원이 진배한 것과도 상통하는데, 1829년 2월 진찬에서는 자경전정일 미수와 염수, 대선, 소선, 탕, 만두, 차 등을 모두 주원이 나누어 맡으면서 기명 역시 주원이 조달한 것에 비해, 1828년 2월과 1848년에는 연향 대부분을 내숙설소가 맡아 진헌 범위가 더 넓으므로 소용 기명 일부를 사용원 진배품이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배설(排設) 품목에 보이는 화준(花樽)의 변화

배설 품목은 참석자의 신분에 따른 위치(位次)를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특히 주정(酒亭)과 준화의 기물 양상이 주목되어 왔다. 주정에는 대상자에 따라 옥과 은, 은도금 등 재질이 다른 잔과 병이 구성되면서 위계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내하품이거나 연향을 위해 새로 제작되었고 술을 담은 주준(酒樽)만 사용원에서 진배했다. 주준의 내용은 1828년과 1829년에는 세자와 빈궁까지 용준을, 1848년에는 순화궁까지 용준을 사용한

24) 이에 비해 1829년 의례의 재용에 따르면, 옮겨온 재원의 총 19,372냥 중에서 호조가 8,100냥과 쌀 130석의 절전(折錢) 520냥, 병조가 1,700냥을 보냈고 내하한 내숙설소의 돈은 8,352냥이었다. 비용은 여러 부문에 쓰였지만, 내숙설소의 각종 값과 숙수의 음식값, 모군(募軍)의 품삯으로 지출했다고 기록한 금액이 8,352냥으로 내하금과 일치한다. 1828년 무자년의 진작의례에는 재용이 따로 정리되지 않았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2.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樽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3. 『己丑進饌儀軌』(1829)  
'樽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정과 함께 준화에도 용준이 구성품으로 포함되었지만 19세기 전반을 거치며 기물 사용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1827년 정해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것을 기념해 9월 자경전에서 열린 진작까지만 해도 관례대로 대전 배설품에 준화상 2좌가 포함되어 있고, 기용(器用)에서도 대전 소용품 중 화준 2좌를 사용원에서 진배한 것으로 명기했다.<sup>25)</sup> 연향을 위해 화준 1좌를 제작하라는 명에 따라 사용원이 진배한<sup>26)</sup> 화준은 전례대로 용준이었고 이를 도식에서 확인할 수

25)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二, 排設;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二 器用, “大殿壽酒亭龍樽一坐, 廚院機尙方…花樽二坐, 廚院機尙方所盛白米司藥寺…”

있다(도 2). 1828년 무자년에는 연설(筵說)을 통해 2월 자경전에서 열린 진찬에 준화를 배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례의 기용에는 물론, 도식과 반차도에도 준화가 보이지 않는다.<sup>27)</sup> 그러나 1829년 기축년에는 2월의 자경전 내진찬과 야진찬, 회좌에 다시 준화가 등장하는데, 반차도와 진찬도에서 비록 이전과 달리 연향 권역의 주변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준화의 모습 자체는 도식에 따르면 전례대로 용준에 꽂은 모습이 1827년 의례의 도식과 대동소이하다(도 3). 1829년 기록에는 내진찬의 어좌배설위차 내 준화 1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때 용준을 주원, 즉 사옹원에서 진배한다고 적었다. 야진찬배설위차에도 어좌 내 준화 1쌍이 보이는데, 진배에 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익일회좌에는 왕세자가 주빈이 되면서 예좌(睿座)의 기물로 준화 1쌍이 포함되었고, 동쪽에 위치해 서향인 왕세자 자리의 맞은편 서쪽에 두 개의 준화가 놓인 것을 반차도와 진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칠아가상에 놓는 어좌 배설과 달리 준화를 흑칠아가상에 놓았지만 용준과 준화 자체는 진찬 정일에 배설한 것을 이어서 썼다.<sup>28)</sup>

19세기 전반 준화의 배설은 영정조대 준화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비해<sup>29)</sup> 실제적으로 준화의 미설치를 시도했고, 이듬해 다시 설치했지만 위치를 이동시키는 등 그 권위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이 준화의

26)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一, 下令 丁亥 八月二十八日, “口傳下令曰, 進爵時所用樽花一雙及樽床, 自整禮所造入事, 分付”; 『慈慶殿進爵整禮儀軌』卷二, 甘結 丁亥 九月初一日, “今次進爵教是時, 樽花一雙進用事, 下令教是置, 樽花床及花樽一雙, 正日及良造作待令事. 司饗院, 尙衣院”

27) 『戊子進爵儀軌』卷一, 筵說 戊子 正月十四日, “…令曰 樽花則勿爲之 只床花磨鍊而以散花爲之…”

28) 『己丑進饌儀軌』卷二, 排設, “翌日會酌時排設位次, 睿座, 簾外補階上近東西向… 樽花一雙, 黑漆阿架床尙方, 紅桃一本, 碧桃一本, 龍樽臺具, 以上正日排設仍用”

29) 영정조대 사치 풍조에 대한 경계의 한 방편으로 연향에서의 준화 설치 여부가 논의되었던 내용은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41쪽.

설치 목적과 장식 효과 측면에서는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강화했을 수 있다. 이는 1828년 설치하지 않는 예를 남겼으나 이듬해 위치를 옮기더라도 설치했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준화의 장식성을 고려한 결과로 추측된다. 다만, 1829년에 이르러 관례적으로 설치되던 중심 권역이 아니라 주변부에 놓을 수 있게 된 점은 왕실 연향에서 준화를 고정 요소로 경직되게 파악하기보다 가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측면을 보이는 것이다. 준화에 대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1848년에 이르면 준화의 기물을 관례대로 사용원이 진배하던 용준이 아니라 내하품인 당화준으로 교체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 왕실의 내진찬에서 고위 참석자의 기물로 내하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던 것을 상기하면, 1848년 준화의 용준을 당화준으로 교체한 것은 내진찬에서의 중심적인 장식물에 대한 선택 역시 왕실이 주도하게 되면서 왕실 내 최고위 사용자들의 기물 사용과 맞물려 당화기로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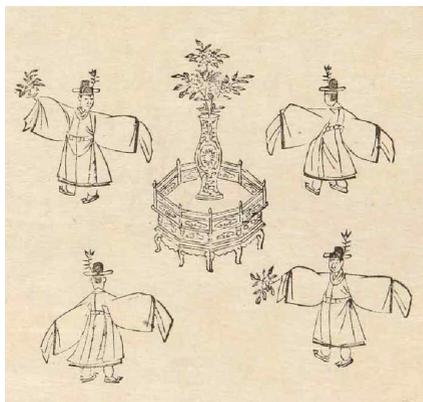
### 3. 정재(呈才)의 새로운 기물과 당기(唐器)의 사용

19세기 전반 왕실 연향에서는 정재 역시 정비되면서 왕권 강화의 목적을 함의한 것으로 주목되어 왔다. 1828년과 1829년에 도입된 새로운 정재는 중국 당·송의 고사 또는 악무를 참고해 창작된 것이었다.<sup>30)</sup> 정재용 기물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새로 도입된 정재 중 화준 또는 화병이 포함된 예들에는 당기 또는 당기로 추정되는 기물이 포함되어 있다.<sup>31)</sup>

30) 1828년과 1829년 새로운 정재의 도입에 중국문헌이 활용된 양상은 조정아, 앞의 논문, 2003b, 273~302쪽 참고.

31) 1828년 무자년 의궤 도식의 정제도에서 화병 또는 화준이 포함된 실행 장면이 그려진

1848년 진찬에서 중심 권역의 준화에 사용한 당화준과 함께 자주 비교 분석되어온 것은 정재 중 ‘가인전목단(佳人剪牡丹)’의 모란화준이다. 가인전목단은 1829년 기축년 2월의 내진찬과 6월의 내진찬에 모두 설행되었는데,<sup>32)</sup>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1828년 무자년 6월의 연경당 진작부터 설행된 바 있다. 1828년 의례에 모란화준은 정재도와 악기도에 도식이 수록되었고, 악장(樂章)에는 모란화준을 놓는다는 내용 정도만 보인다(도 4).



도 4. 『戊子進爵儀軌』(1828) 卷首 附編 ‘佳人剪牡丹’(세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것은 헌천화(獻天花), 침향춘(沈香春), 연화무(蓮花舞), 가인전목단이며, 병이나 준이 아니라 화항(花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상무(寶相舞)가 있다. 모두 6월 연경당 진작에서 설행되어 의례의 부편에 수록되어 있고, 꽃을 꺾는 기물에 대해서는 화병(花瓶), 모란화병(牡丹花瓶), 연화병(蓮花瓶), 모란화준(牡丹花樽), 연화항(蓮花缸) 등으로 나타난다. 1829년 기축년 의례의 2월과 6월 내진찬에서 정재도를 통해 화준 또는 화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예는 가인전목단과 보상무이다. 이들 기물에 관한 다른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도식의 정재도와 악기도에 보이는 기물의 특징을 통해 중국산 기물로 추정되어 왔다. 19세기 전반 의례의 정재도에 나타난 기물 사용과 양식 분석은 김미경, 앞의 논문, 2006, 30~38쪽; 同著, 앞의 논문, 2009, 299~303쪽;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20~25쪽; 최경화, 앞의 논문, 2014, 117~118쪽; 김은경, 앞의 논문, 2018, 111~113쪽 등 참고.

32) 신승인은 1829년 6월 자경전진찬에서의 가인전목단 설행을 외진연에서 설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나(앞의 논문, 2012, 24쪽), 해당 진연은 내진찬이었다. 6월 진찬의 설행을 기록한 의례 부편(附編) 이문(移文)에서도 해당 연회를 ‘내진찬’으로 명기한 바 있다: 『己丑進饌儀軌』 卷三, 附編 移文 己丑六月二十四日, “今番內進饌後…”; 己丑七月初一日, “今次內進饌教是時…”



도 5.

『己丑進饌儀軌』(1829) 卷首  
 呈才儀仗 ‘牡丹花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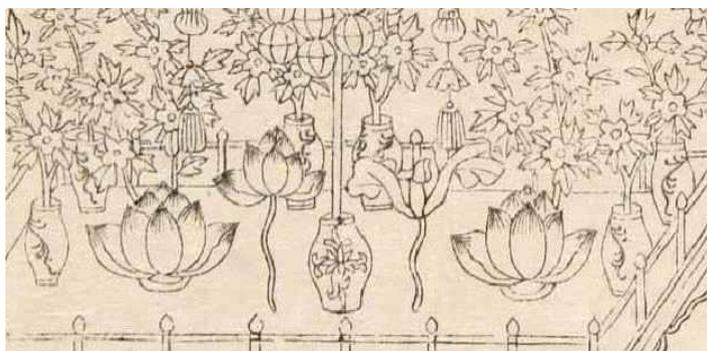
도 6.

『己丑進饌儀軌』(1829)  
 卷首 附編 呈才圖  
 ‘佳人剪牧丹’,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29년 진찬의 모란화준 역시 악장 외에 별도의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도식의 정재도와 악기도에서 모란화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도식에 보이는 1829년 모란화준은 1828년의 것과 형태와 문양 장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1829년에는 2월과 6월 진찬에 모두 가인전목단이 설행된 만큼 2건의 가인전목단 정재도가 확인되는데, 2월의 경우 정재도와 함께 악기도에서도 모란화준의 도식이 수록되었고 6월에는 정재도에만 수록되었다(도 5, 6).<sup>33)</sup> 2월 진찬에서 모란화준의 기물은 ‘수파용문(水波龍文)’이 시문된 용준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문양 특징을 통해 이를 당화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sup>34)</sup> 6월의 정재도에 보이는 모란화준은 도식에서 같은 해 2월의 모란화준

33)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2월 진찬에서의 모란화준에 대해서만 다루어졌고, 6월 진찬에서의 모란화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바 없었다.

과도 문양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2월의 화준을 이어서 썼는지, 새로운 화준을 사용한 것인지는 의례 내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도 7. 『己丑進饌儀軌』(1829) 卷首 呈才儀仗 ‘池塘板’(세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편, 1829년 2월 내진찬에서는 준화가 재등장한 것과 함께 악기풍물에도 새로운 장식물이 출현했다. ‘지당판(池塘板)’으로 불리며 반차도와 진찬도를 통해 2월 내진찬의 정일진찬과 야진찬에서 정재가 설행되는 무대 끝부분에 놓인 것을 볼 수 있고, 익일회작에서는 예좌에 마주 보는 서쪽에 설치하고 지당판 양옆에 준화를 놓았다. 1829년의 지당판은 만개한 연꽃과 등룡을 중심으로 7개의 화병에 꽃을 꽂았는데, 도식에 등장하는 지당판의 7개 화병에 대해서는 그 문양을 식별해 연화문과 초화문이 시문되었다고 추정된 바 있다(도 7).<sup>34)</sup> 지당판에 관해 이제까지는 주로 도식의 내용으로만 다루어 졌지만, 악기풍물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인다. 지당판 1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물목을 나열한 가운데, ‘호로병 7좌’로 밝힌 화병은 소입 물목을 통해 목기(木器)임을 밝혔다.<sup>35)</sup> 외부에 백휴지를 발라 그림을 그리고 소입물

34)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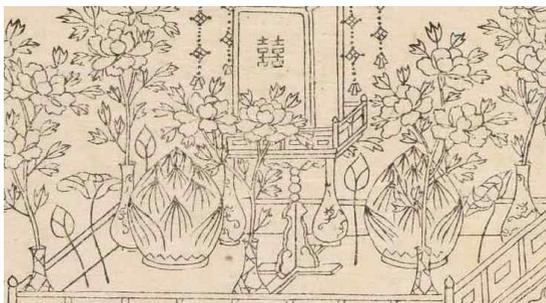
35)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26쪽.

목에 니금과 금박을 포함한 각종 채색이 확인되므로, 지당판의 병은 목제이지만 화려하게 장식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8.

『戊申進饌儀軌』  
(1848) 卷首 樂器圖  
‘牡丹花樽’(세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9. 『戊申進饌儀軌』(1848) 卷首 呈才儀仗圖

‘池塘板’(세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48년 진찬에서도 가인전목단의 실행과 모란화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의 모란화준은 1828년과 1829년의 모란화준과도 다른 종류의 당화준이 사용되어 도식에 보이는 특징이 분석되어 왔다(도 8).<sup>37)</sup> 그러나 도식과 함께 사용면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1848년 의례의 악기풍물에서 가인전목단의 모란화준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가인전목단 소입 물목 가운데 ‘당채화사병 1좌’를 기록하고 화류목의 받침을 갖추었다

36) 『己丑進饌儀軌』卷三, 樂器風物, “池塘板一坐所入… 葫蘆瓶七坐所入, 椶木各長一尺二寸七片, 瓶外塗百休紙一斤, 板內塗楮注紙六長, 合起畫, 唐朱紅三碌各三兩, 片臙脂二片, 荷葉黃丹眞粉各五兩, 二青同黃各一兩, 三青五錢, 石碌二兩, 石紫黃八錢, 丁粉三斤, 泥金一分, 金箔八長, 石礪朱一兩五錢, 青花墨三丁, 阿膠一斤八兩, 明油四合…”

37) 1848년 모란화준 도식의 분석은 김미경, 앞의 논문, 2006, 29~44쪽; 同著, 앞의 논문, 2009, 299~307쪽;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14~65쪽 등 참고.

고 하면서 이것이 내하품임을 밝혔다.<sup>38)</sup>

지당판 역시 1829년에 이어 1848년 진찬에서도 설치되었는데, 구성품에 변화가 있었다. 의궤 도식의 정재의장도에 포함된 지당판 내 7개의 화병 중 4개는 1829년의 지당판에서와 유사하게 초화문 등 넝쿨무늬로 보이는 문양이 확인되는 것에 비해, 3개는 새로운 무늬가 나타난 것이다(도 9). 새로운 3개의 병은 빙렬이 가득한 모습인데,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방가요(倣哥窯)’자기로 추정할 견해가 있었다.<sup>39)</sup> 그러나 이때 지당판의 기물은 1829년의 예와 마찬가지로 목기였다. 악기풍물에 따르면, 지당판 1좌 소입 물목으로 판은 전에 진배한 것을 개조해 그대로 썼고, 호로병 7좌 내 4좌 역시 전에 진배한 것을 개조해 그대로 쓴다고 했으므로 도식에 나타나는 4개의 넝쿨무늬 병은 1829년의 것과 동일한 기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3좌는 새로 만들었는데, 이때 소입 물목에 가목 각 장 1척 2촌, 방 7촌으로 밝혀 1829년 제작품과 거의 같은 크기의 목기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지당판에 들어간 염료는 1829년과 거의 유사하지만 니금과 금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니금과 금박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채색 안료를 통해 보면, 새로 제작된 3개의 화병은 빙렬 무늬라는 방가요풍의 문양을 채용해 기존의 화병보다 좀 더 고색(古色)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화병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장식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남아있는 기록화를 통해 보면, 무신년의 진찬 장면을 묘사한 5건의 진찬도병에서도 지당판의 화병은 빙렬 무늬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다만, 5건의 진찬도병 모두 지당판의 화병 7개를 의궤의 도식과 달리 전부 빙렬 무늬로만 그리고 있으므로, 의궤의

38) 『戊申進饌儀軌』卷三, 樂器風物, “佳人剪牡丹所入…唐彩畫砂瓶一坐, 花柳附坐具, 內下…”

39)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26쪽.

40) 『戊申進饌儀軌』卷三, 樂器風物, “池塘板一坐所入, 板前排改造仍用, 葫蘆瓶七坐內, 四坐前排改造仍用, 三坐新造所入, 椴木各長一尺二寸方七寸…實入…椴木三尺六寸, 價錢四兩一錢, 每尺一兩一錢四分…”

내용과 기록화 묘사의 상호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sup>41)</sup>

지당관의 화병을 목기로 제작한 것에 대해, 1848년 의궤의 악기풍물 습의 건(習儀件)에 기록된 가인전목단의 모란화준 관련 내용도 흥미롭다. 습의는 진찬에 앞서 모두 일곱 번에 걸쳐 통명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습의 때 가인전목단에 내하품인 ‘당채화사병’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목준(木樽)’을 따로 만든 것이다. 목준 1좌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가목 2척을 비롯해, 무늬를 그리기 위한 당주홍, 삼록, 하엽, 이청, 삼청 등의 각종 안료가 필요했고, 목준에 꽃을 모란화 1타 역시 따로 구입해 썼다.<sup>42)</sup>

습의에 사용하기 위한 임시 기물로 가인전목단의 모란화준을 목준으로 제작한 것은 1829년 이래 지당관의 화병을 목기로 제작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입 가목의 크기를 통해 보면 지당관의 화병에 들어간 나무 길이가 1척 2촌인 것에 비해 모란화준의 나무 길이는 2척이므로, 모란화준의 실제 크기는 지당관의 화병보다 다소 컸겠지만, 소입 안료가 지당관 화병의 안료와 겹치는 것이 많아 채색이 더해진 비교적 화려한 모습은 공통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굳이 장식까지 가할 필요가 없는 임시 기물임에도 모란화준의 목준을 각종 안료로 장식한 점은 원래의 모란화준, 즉 ‘당채화사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추측 역시 가능하게 한다.

41) 1848년 당시 유지된 부분과 변화된 부분을 비교적 명확히 기록하고 그림으로도 묘사한 의궤와 달리 진찬도병에는 지당관의 병 7개가 모두 방가요풍으로만 묘사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1848년 의궤 묘사와 동일하게 4개의 닝쿨무늬 병과 3개의 방가요풍 병을 넣은 지당관의 모습이 1902년 고종의 망육순(望六旬)과 즉위 40주년을 송축하기 위해 11월 덕수궁에서 열린 진연을 묘사한 <임인진연도>에서도 확인되므로, 1848년 진찬의궤에 기록된 구성이 정착되면서 후대의 전형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42) 『戊申進饌儀軌』卷三, 樂器風物 習儀件, “佳人剪牧丹… 牧丹花四十枝一朵 實用 木樽一坐所入 椶木 二尺 起畫次 唐朱紅 三碌 荷葉 二靑 三靑 各五錢 丁粉 眞粉 同黃 阿膠 各一兩 明油二合… 實入… 牧丹花四十枝1朵 價錢十三兩, 椶木 二尺 價錢二兩 每尺一兩…”

가인전목단의 모란화준을 목기로 대신한 것과 같이, 습의에서는 원래의 고급 물품을 그보다 위계가 낮은 재질의 물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의 감결에 따르면, 다음날 실행하는 내습의를 위해 배설 등 각종 물품을 빈양문 근처에 즉각 진배하도록 하고 각 공인들이 진배 후에도 대기하다가 철배, 즉 배설한 물건을 거두어 치우는 것까지 말도록 했다.<sup>43)</sup> 감결에 언급된 습의용 물품은 다채로운데, 이 중 용준 7좌, 사병(砂瓶) 10개, 사잔(砂盞) 20좌, 사다관(砂茶罐) 4좌, 받침 갖춘 사다종(砂茶鍾) 4좌 등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사다관 4좌와 사다종 4좌는 명백히 대왕대비전을 비롯해 대전과 중궁전, 순화궁에 배설하는 다정(茶亭)의 은다관과 은다종을 대체한 것이다. 사병 10개와 사잔 20좌 역시 대왕대비전 이하 주정에 배설되는 은기와 유기 등 상위 재질의 기물을 대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모두 내하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습의임에도 불구하고 용준 7좌를 진배한 것은 이채롭다. 해당 감결은 호조 이하 각 사에 내려졌는데, 여기에는 사용원과 함께 반사기계, 사기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사기전이 용준을 제외하고 내습의에 필요한 사기류의 진배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진찬

43) 『戊申進饌儀軌』卷二, 甘結 戊申 二月初十日, “...內習儀, 明日通明殿設行是如乎...龍樽七坐, 砂瓶十箇, 砂盞二十坐, 砂酒煎子四箇, 砂茶罐四坐, 砂湯器三竹, 砂茶鍾臺具四坐...卽刻進排于賓陽門近處爲平矣, 各其賈人等待是如可, 仍爲撤排爲跡, 後日內習儀時, 各該司依此舉行事. 戶曹, 排設房, 書房色, 尙衣院, 司饗院, 典設司, 濟用監, 儀仗庫, 長興庫, 盤砂器契, 假函契, 砂器塵, 地衣契, 竹契”

44) 해당 기물의 진배와 철배에 사기전이 모두 관여한 점에서 이러한 물품들은 내습의를 위해 대여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전에서 사기를 대여한 것은 18세기 후반 이래 정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관해 정조14년(1790) 10월 3일자 일성록(日省錄)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봉상시에서 계한 바로 봉상시 및 내수사 숙수와 사기전이 당시 그릇 대여업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봉상시와 내수사 숙사가 민간에게 목반(木盤)과 사기(砂器)를 빌려주는 일을 겸업한 지는 오래되었고 사기전이 세기전(貰器塵)으로 시안(市案)에 기록하고 그릇 빌려주는 일을 겸업한 것은 영조 30년(1754) 윤희를 받아 공식화된 것으로 언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일성록』 정조14년 10월 3일자 기사 참고.

이후 6월 3일의 이문에는 내습의에 쓰는 각양 사기를 상사기(常砂器)를 들여 쓸 수 없으므로 사기전에 있는 백사기를 취용했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회감(會減)해 적었는데, 병과 배, 대접, 탕기를 비롯해 다관 4좌와 다종 22좌가 포함되어 있었다.<sup>45)</sup>

습의 때 내하품 대부분을 사기와 목기 등 위계가 낮은 물품으로 대체한 것에 비해 사용원 진배품인 용준을 직접 사용한 것은 당시 용준 및 내하품의 위상과 관련해 여러 시사점과 의문점을 남긴다. 즉, 이것이 사용원 진배품과 내하품의 조달 및 운반 체계상의 편의 때문인지, 아니면 용준에 비해 내하품이 더 고급이어서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인지, 또는 사용원 재고에 용준이 충분히 습의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정도였는지 등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습의 물품에 준화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준화 없이 찬안과 주정, 다정 등 이동이 필요한 기물에 대해서만 습의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뢰 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향후 자료의 발굴이 기대된다.

#### IV. 1848년 진찬의궤 속 당화준과 동시기 도사취향의 연관성

1848년 진찬에서의 당화준은 내하품과 당화기라는 측면에서 내진찬의 최고위 기물로 당화기를 내하해 사용하던 것과 연관된다. 기물 역시 화려하면서도 격식을 추구한 진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지당판의 화병 중 새로 제작된 3건의 목병이 방가요풍으로 장식된 점과

---

45) 『戊申進饌儀軌』卷一, 移文 戊申 六月初三日, “爲相考事, 內習儀時所用, 各樣砂器, 不可以常砂器入用, 故砂器塵所在, 白砂器捧甘取用, 後錄移文爲去乎, 依此會減宜當. 戶曹. 中瓶二十四坐內 十一坐 破傷 五坐 闕失 八坐 還下 杯臺具三十五坐內 十二坐 破傷 十坐 闕失 十三坐 還下 大櫛一竹七箇內 一竹一箇 破傷 六箇 還下 湯器六竹內 四竹六箇 破傷 一竹四箇 還下 茶罐四坐 還下 茶鍾二十二坐內 十坐 破傷 十二坐 還下”

가인전목단의 모란화준에 새로 내하한 당화병을 채용한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당판의 목제 화병에 더해진 방가요풍의 문양에서 재질의 차이를 뛰어넘는 장식에의 선호와 구현 의지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외견상 화려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좀 더 고색(古色)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그 함의는 당기(唐器)가 찬안 기명 외에 정제 기물로 왕실 연향에 처음 등장한 1828년에서 1829년에 이르기까지의 정제 재정비와도 맞닿아있다.

19세기 전반의 새로운 정제는 당시 유입된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한, 당, 송대의 고사와 악무를 참고했고, 고구려와 신라의 고사 역시 전거로 활용되었다.<sup>46)</sup> 왕실 연향에 새로운 정제를 설행한 것에 대해 이를 그 기원에 관계없이 화려한 연회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파악한 견해도 있지만,<sup>47)</sup> 정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그 연원을 설명한 것은 화려하고 성대하기만 해서는 그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새로운 정제이지만, 창제의 근거는 고대에 두었다고 명시해 정제의 창작과 설행에 대한 명분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정제의 도입이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화려함으로 시선을 끄는 동시에 오래되고 확고한 권위에 기대는 것은 새로운 권위를 강화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기물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로, 1828년과 1829년의 연향에서 새로운 정제의 도입과 함께 기물의 구성 역시 아직 정비 과정에 있는 것과 같다면, 1848년 진찬을 통해서는 정제의 구성과 기물의 사용이 정착되고 이후 19세기 후반의 왕실 연향에서도 답습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1848년 지당판에 방가요풍의 화병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화의 기물로 채용된 당화준 역시 1828년과 1829년 연향의 정제를 거쳐 1848년에 이르러 진찬의 중심

46) 조경아, 앞의 논문, 2003b, 273~302쪽 참고.

47) 신승인, 앞의 논문, 2012, 50쪽.

권역에 등장했으며, 관례적인 용준의 사용을 대신했다는 점에서도 화려한 동시에 권위 있는 시각물로 자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도 10.青花四季花卉紋碗, 明永樂(1403-1424), 높이 9.3cm, 國立故宮博物院



도 11.鬥彩番蓮蓋罐, 清乾隆(1735-1796), 전체높이 22.4cm, 國立故宮博物院

1848년 진찬의궤의 준화 도식에서와 같이, 기면 가득한 당초문이 연화, 보상화, 모란 등을 둘러싼 주변으로 여러 길상문이 조합된 구성은 중국 청대 건륭 연간 이래 전형화된 문양 형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이는 청대에 명대 양식을 방제(倣製)한 것과는도 연관된다. 청대 강희~건륭년간에 심화된 의고(擬古) 경향은 경덕진 관요의 자기 제작에도 반영되어, 송대와 명대의 이름난 요장의 제작품들이 청대 궁정에서 감식과 애호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방제 및 재해석되며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했다.<sup>48)</sup> 화당초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화했는데, 화훼(花卉) 무늬로도 분류되는 화당초문은 명대

48) 汪慶正, 『清代瓷器(上)』, 『中國陶瓷全集14 清(上)』,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11~19쪽; 耿寶昌, 『明清瓷器鑑定』, 紫禁城出版社, 1993, 355~359쪽; 馮小琦·陳潤民, 『明清青花瓷器-故宮博物院藏瓷賞析』, 文物出版社, 2000, 37~38쪽;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490쪽 등.

관요 제작품 중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며 명대에 이미 앞 시기의 조형으로 방제가 이루어질 정도였다(도 10).<sup>49)</sup>

이러한 화당초 계열의 문양은 청대에도 명대 자기의 대표 문양 중 하나로 애호되었다.<sup>50)</sup> 명대 양식을 본떠 기면 가득한 당초문 바탕에 연화문이나 보상화문 등을 결합한 문양은 건륭연간을 거치며 여러 길상문과 함께 더욱 복잡하게 구성되며 이 시기의 특징으로 파악될 만큼 발전했다.<sup>51)</sup> 건륭연간은 옛 명품의 방작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기형과 문양을 재구성해 새로운 조형의 발전을 이룬 시기로,<sup>52)</sup> 화당초문 역시 주요 구성은 기면을 가득 메운 넝쿨 사이로 보상화나 연화, 모란 등이 만발하고 아래 또는 옆을 향하는 박쥐가 ‘복(福)’을 상징하며, 경우에 따라 도안화된 ‘수(壽)’자 혹은 ‘희(囍)’자가 더해지는데, 앞 시기의 청화백자를 비롯해 두채나 분채, 범랑채

49) 江建新, 「简论明早期瓷器及相关问题」, 『景德鎮陶瓷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13, 15~178쪽;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初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6, 307쪽;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127~128쪽.

50) 청대 옹정6년(1728)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의 <고완도(古玩圖)> 및 옹정7년(1729) 제작품으로 파악되는 V&A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의 <고완도(古玩圖)>는 당시 궁정에 소장, 진설된 여러 고완품을 선별, 수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림 속 기물들 중 화당초문 계열의 명대 자기를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4건의 도자도첩(陶瓷圖冊) 역시 건륭년간의 도자 감상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되어 왔는데, 이 중에도 연화당초문의 명대 선덕년간 청화백자 주자가 보인다. 영국 박물관 소장품의 기물 분석은 余佩瑾, 「品鑑之趣-十八世紀的陶瓷圖冊及其相關的問題」, 『故宮學術季刊』 22卷2期, 國立故宮博物院, 2004, 144~149쪽; Evelyn S. Rawski and Jessica Rawson ed., *CHINA The Three Emperors 1662-1795*,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5, p. 430 참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에 관해서는 余佩瑾, 「乾隆皇帝的古陶瓷鑑賞」, 『得佳趣-乾隆皇帝的陶瓷品味』, 國立故宮博物院, 2012, 14~40쪽 참고.

51) 徐湖平, 「瓷窑可验文明之象-概述中国清代官窑瓷器」, 『中國清代官窑瓷器』, 上海文化出版社, 2003, 21쪽.

52) 余佩瑾, 「別有新意-以乾隆官窯的創新爲例」, 『乾隆皇帝的文化大業』, 國立故宮博物院, 2002, 283~284쪽.

등 다양한 기법으로 두루 유행했다(도 11).<sup>53)</sup>

명대 관요 제작품에 대한 관심과 애호는 중국 청대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도 나타났다. 조선후기에는 고동서화에 대한 완상 풍조가 발달하면서 진귀한 물건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것이 문인의 고급 취미이자 필수 교양으로 여겨졌고,<sup>54)</sup> 실제 기물에 대한 수집 욕구 역시 증가했다.<sup>55)</sup> 각종 지식이 망라된 조선후기 백과사전류의 저술은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명대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대표적으로는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중국 문헌인 『준생팔전(遵生八牋)』을 발취, 인용한 것을 비롯해,<sup>56)</sup>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叢稿)』 중 「고금자요변증설(古今瓷器辨證設)」에서도 여러



도 12. 화협옹주묘 출토 명기, (앞)몸체높이 2.3cm, (뒤)몸체높이 3.7cm, 국립고궁박물관

- 53) 耿寶昌, 앞의 책, 1993, 366~368쪽; 汪慶正, 「清代瓷器(下)」, 『中國陶瓷全集15 清(下)』,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14~18쪽.
- 54)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277~316쪽; 장진성, 「조선후기 고동서화 수집열기 성격-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사회평론, 2004, 154~203쪽; 장진성, 「조선후기 士人風俗畫와 餘暇文化」,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261~291쪽; 안대회, 「조선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65~96쪽 등.
- 55)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조선후기 玩物 陶器」, 『미술사학보』 39, 미술사학연구회, 2012, 132~163쪽 참고.
- 56)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五, 古瓷器, “論諸州窯…我明永樂年製者, 式樣精妙, 傳用可久宣德年製者, 種種小巧之物, 最佳…”

문헌 자료들을 인용해 중국과 조선, 일본의 자기 발달사를 개설한 바 있다. 특히, 이규경의 저술에서는 고금의 자기를 변증한다는 제목 아래 내용의 상당 부분에 중국 송대와 명대 도자에 대한 중국 문인들의 저술을 차용했는데, 이는 문장의 고금에 고하가 있듯 자기의 새로움과 오래됨 역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sup>57)</sup> 옛 도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중국 도자기의 개론에는 송대 자기에 대한 기록과 함께 명대 관요 제작품에 대한 여러 감평을 수록했고, 그 내용은 『임원경제지』와 마찬가지로 주로 ‘선덕요’, ‘성화요’, ‘영락요’, ‘만력요’ 등의 기물 가치를 논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도 골동의 일종으로 명대 자기를 인식하고 중국 문인들의 감평을 참고하며 그에 관한 지식과 감식안을 형성해갔던 조선후기의 정황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조선에도 명대 청화백자가 유입되면서 화당초문 계열의 문양 역시 조선전기 청화백자에 나타났고,<sup>58)</sup> 여러 유적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품질로 화당초문 계열의 문양을 장식한 중국산 백자들이 발견된 바 있다.<sup>59)</sup> 중국산으로 추정된 국내 유적 출토품은 명대 이래 활발하게 생산된 화당초문 계열 청화백자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며, 명대 침몰 선박에서의 인양 사례들은 이들의 활발한 유통 상황을 보여준다.<sup>60)</sup> 이와 함께, 숙신공주(?-1645)나

57) 『五洲衍文長箋散稿』古今瓷審辨證設, “...以比世運文章之古今高下。如審之新舊不相侔。亦如是也。此中原瓷審之大略也。”

58) 전승창,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미술사학연구』 264, 한국미술사학회, 2009, 47~48쪽; 이효정, 「15-16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명대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141~142쪽 등.

59) 이종민,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중앙사론』 3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2, 312~313쪽;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17, 한국문화유산협회, 2013, 31~59쪽; 김은경, 「조선시대 유적 출토 明代 자기에 대한 몇 가지 再考」, 『한국학연구』 7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5~41쪽 등.

60) 北京市文物研究所 編著, 『毛家灣-明代瓷器坑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7; Sten Sjostrand and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화협옹주(1733-1752), 원빈홍씨(1776-1779) 등 왕실 구성원의 무덤 부장품에 화당초문의 중국산 백자가 포함된 점 역시 조선후기까지 이러한 양식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 정황을 시사한다(도 12, 13). 기면을 가득 채우는 복잡한 화당초문의 백자 제작은 중국 내에서 명대 이래 청대에 걸쳐 민간요장으로도 확산되었고, 문양 구성은 꽃과 넝쿨무늬의 특징을 살리며 채색을 더한 것부터 선묘용으로 기면을 더욱 복잡하게 채우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열로 형식화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형이 공통적으로 명대풍의 문양으로 인식된 정황은 남아있는 유물들 가운데 청대 제작품이지만 명대 관지를 명기한 예들로부터도 파악할 수 있다.



도 13. 백자청화초화문합, 높이 3.3cm, 원빈홍씨묘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백자철화당초문뚜껑편, 잔존높이 2.3cm, 경기도 용인 왕산리 가마터 출토,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발굴

조선전기 청화백자로의 제작 이래 화당초문의 백자는 1620년대 요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요 가마터 출토품에서처럼 철화백자로도 제작되었지만(도 14),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

*its Ceramic Cargo*, Kuala Lumpur: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2007; 廣東省博物館, 『牽星過洋-萬曆時代的海貿傳奇』, 2015 등.

다. 19세기 관요산의 청화백자에서 확인되는 화당초문은 꽃과 넝쿨무늬에 비교적 채색이 잘 된 것부터 무늬를 선묘로 가득 시문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식의 도안으로 확인된다. 일부에서는 중심의 꽃무늬, 특히 연꽃을 묘사하면서 꽃잎을 반으로 나누어 바깥쪽 면을 칠하는 식으로 채색자기의 표현법에 기반해 다양하게 발달한 동시기 자기의 영향이 나타나므로 문양 표현에는 다채로운 요소가 흡수된 것으로 여겨진다(도 15).<sup>61)</sup>



도 15. 백자청화연화당초문접시, 구경 1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 16. 백자청화보상화당초문병, 높이 24.3cm, 국립중앙박물관

61) 꽃잎의 반만 채색하는 방식은 청대 채색자기에 많이 보이며, 에도시대 일본자기에도 유입되어 채색자기 뿐 아니라 청화백자의 문양 표현에도 활용되었다. 19세기 조선 백자에는 형태와 문양에 청대 법랑채 자기를 비롯해 일본자기의 영향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표현은 동시기 자기의 다채로운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청대 법랑자기의 영향에 관해서는 김은경, 앞의 논문, 2018, 111~115쪽 참고. 조선 후기 일본자기의 영향에 관해서는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 양상」, 『미술사논단』 29, 한국미술연구소, 2009, 213~217쪽 참고.

19세기 이래 화당초문 계열 청화백자는 다양한 구성으로 제작되었고,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급품으로 향유되며 이왕가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동체 하부에 무게 중심을 둔 기형과 유색, 시문 수법 등에서 19세기 조선 관요의 제작 특징을 드러내는 병이 확인되는데, 촘촘한 선묘풍 당초문으로 연화문과 보상화문, 박쥐문 등을 빈틈없이 둘러싼 문양 구성에는 청대 후반 이래 장식성이 강화된 화당초문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도 16).<sup>62)</sup> 이 유물은 현재 유물번호를 통해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의 이관품으로 파악되지만, 1930년대의 유리건판 기록으로 본래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1848년 진찬에서 중심 권역의 장식물로 등장한 당화준은 지금까지 중국자기의 애호와 화려한 장식성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사용은 내하품, 당화기, 용준의 대체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관례에 대한 파격인 동시에 왕실 연향의 격식이 새롭게 정비되는 현상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는 1848년 진찬의례와 함께 19세기 전반 연향 의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기류 기명의 전반적인 진배 상황 속에서 내하된 당화준의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밝힐 수 있었다. 즉, 1848년에 이르러 연향의 중심적인 장식물로 당화준이 사용된 것은 내진찬에서 최상위 사용자의 물품으로 당화기가 주로 사용되고 왕실 내하품의 사용 규모와 범위가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준화의 기물 또한 마침내 관례를 깨고 그 범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

62) 송인희,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방고(倣古)풍의 영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보상화당초문 병>을 중심으로」, 『세밀함으로 읽는 한국미술』, 삼성미술관 리움, 2015, 64~79쪽.

파악된다. 이는 당시 연향의 배설 품목을 비롯해 정재를 통해서도 나타나듯 왕실이 추구한 권위를 시각적으로 완성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도식에 나타난 문양 특징이 동시기 도자취향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화준의 사용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1848년 진찬의궤 속 당화준을 통해 19세기 전반 조선 왕실의 고급 기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동시에, 19세기 조선의 물질문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별첨 1] 《무신진찬의궤》(1848) 권2 찬품 기명 일람

(\* 이하 별첨 표에는 기물의 명칭과 지칭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록에 나타난 한자를 그대로 수록했다.)

주관	행사명	대상	진헌내용	그릇수	기물내용	진배처
內熟設所	通明殿 上號日 進別饌	大王大妃殿	進御別饌案	22기	鍮器, 唐畫器, 紅黑邊彫刻高足大圓盤	內下
			進御饌案	45기	鍮器, 甲燔磁器 朱漆高足饌案	內下 尙方
	通明殿 正日進饌	大王大妃殿	進御味數 (3味)	각 3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御小膳	2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廚院 戶曹
			進御大膳	2기	飯器同小膳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廚院 /戶曹)
			進御鹽水	1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湯	1기	飯器同鹽水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饅頭	1기	飯器同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茶	1기	銀茶罐, 銀茶鍾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御別饌案	20기	鍮器, 唐畫器, 紅黑邊彫刻高足大圓盤	內下
			進御果楨		四層倭饌楨	內下
			內進獻	饌案	39기	鍮器, 甲燔磁器, 黑漆大圓盤
	大殿 中宮殿	大王大妃殿	進御饌案	각 26기	鍮器, 甲燔磁器 朱漆低足饌案	內下 尙方
			進御味數	각 3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湯	각 1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饅頭	각 1기	飯器同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茶	각 1기	銀茶罐, 銀茶鍾 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順和宮	進饌案	26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大殿中宮殿進御饌案 (鎡器, 甲燔磁器/朱漆低足饌案)	(內下 /尙方)
		進味數	3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大殿中宮殿進御味數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湯	1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大殿中宮殿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禮頭	1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大殿中宮殿進禮頭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茶	1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大殿中宮殿進茶 (銀茶罐, 銀茶鍾/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大殿	進御別饌案	(20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大王 大妃殿進御別饌案 (鎡器, 唐畫器, 紅黑邊彫刻高 足大圓盤)	(內下)
		進御果楯		饌品/層楯並同大王大妃殿 進御果楯(四層倭饌楯)	(內下)
	內入	上床 20상	각 19기	磁器	內下 總衛營
			각 19기	黑漆大圓盤	
	內外賓	上床 67상	각 19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內入 上床(磁器/黑漆大圓盤)	(內下 /總衛營)
	進饌所堂郎	上床 14상 (당상6상/ 낭청8상)	각 19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內外 賓上床(磁器/黑漆大圓盤)	(內下 /總衛營)
	大臣	分賜上床 5상	각 19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進饌 所堂郎床(磁器/黑漆大圓盤)	(內下 /總衛營)
	諸臣	分賜中床 101상 (2품이상 88상 外)	각 17기	高足磁器	砂器塵
黑漆大圓盤				戶曹	

	關內 入直官 以下	分賜下床 24상	각 12기	高足磁器	砂器塵
			각 12기	朱漆雲足盤	戶曹
	別待令以下	分賜都床 18상	각 12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下床 /少高排(高足磁器/朱漆雲足盤)	(砂器塵 /戶曹)
通明殿 夜進饌	大王大妃殿	進御進饌案	22기	鍮器, 唐畫器, 紅黑邊彫刻高足大圓盤	內下
		進湯	1기	饌品盤器並同正日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茶	1기	茶品/茶罐/茶鍾並同正日進 茶(銀茶罐, 銀茶鍾/朱漆小圓 盤)	(內下 /戶曹)
	大殿	進御饌案	21기	鍮器, 唐畫器, 濃丹高足大八隅盤	內下
	大殿	進湯	1기	饌品盤器並同正日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大殿	進茶	1기	茶品/茶罐/茶鍾並同正日進 茶(銀茶罐, 銀茶鍾/朱漆小圓 盤)	(內下 /戶曹)
通明殿 翌日會 酌	大殿	進御饌案	23기	鍮器, 唐畫器	內下
	大殿			朱漆低足饌案	尙方
	大殿	進御味數	3기	甲燔磁器	內下
	大殿			朱漆小圓盤	戶曹
	大殿	進湯	1기	饌品盤器並同正日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大殿	進茶	1기	茶品/茶罐/茶鍾並同正日進 茶(銀茶罐, 銀茶鍾/朱漆小圓 盤)	(內下 /戶曹)
	大殿	進御別盤果	16기	唐畫器, 朱漆高足大圓盤	內下
	大王大妃殿	進獻饌案 (翌日自內 進獻)	19기	鍮器, 唐畫器, 紅黑邊彫刻高足大圓盤	內下
內進獻	饌案 (翌日自內 進獻)	19기	器數饌品大王大妃殿並同進 獻饌案(鍮器, 唐畫器)	內下	
	黑漆高足大圓盤		內下		

		內賓	上盤只 64		黑漆倭盤	內下
		進饌所堂郎	上床14상 (당상6상/ 낭청8상)	각 19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正日 上床 (磁器/黑漆大圓盤)	(內下 /總衛營)
		諸臣	分賜上床 6상	각 19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進饌 所堂郎宴床 (磁器/黑漆大圓盤)	(內下 /總衛營)
		總衛營 將官以下	分賜中床 13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正日 中床 (高足磁器/黑漆大圓盤)	(砂器塵 /戶曹)
		別待令以下	分賜都床 17상	각 12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正日 都床 (高足磁器/朱漆雲足盤)	(砂器塵 /戶曹)
通明殿 翌日 夜謙	大殿	進御饌案	23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翌日 會酌時進御饌案 (鍮器,唐畫器/朱漆低足饌案)	(內下 /尙方)	
		進湯	1기	饌品盤器並同正日進湯 (甲燔磁器/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進茶	1기	茶品/茶罐/茶鍾並同正日進 茶 (銀茶罐,銀茶鍾/朱漆小圓盤)	(內下 /戶曹)	
廚院 熟設所	通明殿 正日 進別行 果	大王大妃殿	進御別行果	20기	鍮器 磁器 饌案左右挾案	工曹 本院 尙方
		內進獻	別行果	20기	器數饌品器皿並同大王大妃 殿進御別行果(鍮器/磁器/挾 案)	(工曹/ 廚院/尙 方)
		大殿 中宮殿	進御別行果 (設于饌案)	각 15기	鍮器 磁器	工曹 本院
	順和宮	進別行果 (設于饌案)	15기	器數饌品器皿並同中宮殿進 御別行果(鍮器/磁器)	(工曹 /廚院)	

[별첨 2] 《무자진작의례》(1828) 권2 찬품(2월 자경전진작) 및 부편(附編) 찬품(6월 연경당진작) 기명 일람

주관	행사명	대상	진헌내용	그릇수	기물내용	진배처
(2월) 內熟設 所	慈慶殿 正日進爵	大殿 中宮殿	進御饌案	각 44기	唐畫器, 鍮牒匙 朱漆饌案	內下 尙方
			進御小膳	각 2기	甲燔磁器, 紅漆螺鈿三足圓盤	內下
			進御大膳	각 2기	盤器同小膳 (甲燔磁器/紅漆螺鈿三足圓盤)	內下
			進御果檯		朱漆雕刻圓檯	內下
		世子宮 世子嬪宮	進饌案	각 31기	甲燔磁器 黑漆饌案	內下 尙方
		明溫公主	饌床	25기	甲燔磁器	內下
		淑善翁主	饌床	22기	黑漆大圓盤	戶曹
		福溫公主	饌床	21기		
		三公主	饌床	(21기)	器數饌品床花 同福溫公主床 (白磁器/黑漆大圓盤)	戶曹
		淑儀朴氏 永溫翁主	饌床 각 1상	(21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三公主床 (白磁器/黑漆大圓盤)	(戶曹)
		內入	上床 8상	각17기	高足磁器, 黑漆圓盤 (同日先入看品)	戶曹
		淸瑾縣主	頒賜饌床	15기	盤器同內入上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內外賓	16상 (내빈 4상/ 외빈 12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入上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內外宗親 戚臣	頒賜 10상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外賓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諸臣	頒賜 13상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戚臣床	(戶曹)

		諸臣	頒賜 14상	(15기)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縣主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慈慶殿 夜進別盤 果	大殿 中宮殿	進御別盤 果	각 20기	唐畫器, 紅漆螺鈿三足圓盤	內下		
							大殿	進湯
		世子宮	進小盤果	19기	甲燔磁器, 雕刻黑漆圓盤	內下		
							進湯	1기
	慈慶殿 翌日會酌	大殿 中宮殿	進獻饌案	각 22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大圓盤 2坐	戶曹		
		世子宮	進饌案	22기	器皿饌案與正日同 (甲燔磁器/黑漆饌案)	(內下 /尙方)		
					進味數	5기	甲燔磁器 饌案同設	廚院
		明溫公主	饌床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與正日 上床同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命婦	2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與正日 內賓床同 (高足磁器/黑漆圓盤)
		內入	8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與正日內入上床同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2월) 廚院熟 設所	慈慶殿 正日進別 行果	大殿 中宮殿	進御別行 果
		磁器	本院					
		饌案左右設挾案	尙方					
	進御味數	각 5기	鎗器	工曹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湯	각 1기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饅頭	각 1기	盤器同進湯 (磁器/朱漆小圓盤)	(本院 /戶曹)					

		世子宮 世子嬪宮	進茶		銀茶罐	內下		
					朱漆小圓盤	戶曹		
		世子宮 世子嬪宮	進別行果	각 10기		饌案同設		
						鍤器	工曹	
				磁器	本院			
			進味數	각 3기		鍤器	工曹	
						磁器	本院	
			進湯	각 1기		黑漆小圓盤	戶曹	
					磁器	本院		
		進饌頭	각 1기		盤器同進湯	(本院		
					(磁器/黑漆小圓盤)	/戶曹)		
		進茶			銀茶罐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明溫公主	別行果 1상	10기		鍤器	工曹	
						磁器	本院	
						黑漆中圓盤	戶曹	
		(6월) 熟設所	演慶堂 進爵	大殿 中宮殿	進御饌案	각 25기	唐畫器, 黑漆紅心彫刻大圓盤	內下
					進御小盤 果	각 17기	唐畫器, 紅漆高足倭盤	內下
進別味	각 1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進湯	각 1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世子宮	進饌案			16기	甲燔磁器, 黑漆大圓盤	內下		
	進湯			1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世子嬪宮	進饌案			(16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世子宮饌案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明溫公主	饌床			15기	唐砂器, 黑漆大圓盤	戶曹		
淑善翁主	饌床 각 1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明 溫公主饌床 (唐砂器/黑漆大圓盤)	(戶曹)		
淑儀朴氏								
永溫翁主	內入	7상	각 14기	唐砂器, 黑漆大圓盤	戶曹			
	諸臣	頒賜宴床	(각)	器數饌品盤器床花並同淑	(戶曹)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上床 4상	15기)	善翁主饌床 (唐砂器/黑漆大圓盤)	
	演慶堂 夜進別盤 果	大殿 中宮殿	進御別盤 果	각 14기	唐畫器, 紅漆高足倭盤	內下

[별첨 3] 《기축진찬의례》(1829) 권2 찬품(2월 진찬) 및 권3 부편 찬품(6월 진찬)  
기명 일람

주관	행사명	대상	진헌내용	그릇수	기물내용	진배처
(2월) 廚院外 熟設所	明政殿 進饌	大殿	進御饌案	20기	鎗器	工曹
					磁器	本院
					朱漆饌案, 補挾卓	本所 新備
			進御味數 (9味)	각 3기	鎗器	工曹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湯	1기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饅頭	1기	盤器 同進湯 (磁器/朱漆小圓盤)	(本院 /戶曹)	
		世子宮	進饌案	15기	鎗器	工曹
					磁器	本院
					黑漆饌案	本所 新備
			進味數	3기	鎗器	工曹
					磁器	本院
					黑漆小圓盤	戶曹
		進湯	1기	磁器	本院	
				黑漆小圓盤	戶曹	
		進饅頭	1기	盤器同進湯 (磁器/黑漆小圓盤)	(本院 /戶曹)	
		參宴諸臣	宴床 (諸臣 200상)	각 6기	高足磁器	(戶曹)
					黑漆圓盤	戶曹
侍衛諸臣	散果床 (128상)	각 5기	盤器 同參宴諸臣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2월) 內熟設 所	慈慶殿 進饌	大殿	進御饌案	46기	唐畫器, 鎗樑匙	內下
					朱漆饌案	尙方
		內進獻	饌案	34기	唐畫器	內下
					黑漆別大圓盤	戶曹
		世子宮 世子嬪宮	進饌案	각 31기	唐畫器	內下
黑漆饌案	尙方					

	明溫公主	饌床	25기	唐畫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淑善翁主	饌床	22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福溫公主	饌床	21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內入	上床 14상 (正日先入)	각 17기	高足磁器, 黑漆圓盤	戶曹	
	內外賓	62상 (내빈 14상/ 외빈 48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入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內外宗親 戚臣	頒賜上床 8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外賓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諸臣	上床 5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宗親戚臣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頒賜上床 5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宗親戚臣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中床 6상	각 15기	盤器 並同宗親戚臣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頒賜中床 12상	(각 15기)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頒賜下床 1상	14기	饌品盤器床花 並同中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慈慶殿 夜進饌	大殿	進御饌案	22기	唐畫器, 朱漆大圓盤	內下
			進湯	1기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世子宮	進饌案	19기	唐畫器, 紅心黑邊八隅盤	內下
			進湯		甲燔磁器, 朱漆小圓盤	內下
	慈慶殿 翌日會酌	大殿	進獻饌案	30기	唐畫器, 紅心黑漆大圓盤	內下
		世子宮	進饌案	30기	唐畫器 饌案 仍用(黑漆饌案)	內下 (尙方)
進別行果			10기	甲燔磁器	內下	

		明溫公主	饌床	20기	饌案同設				
					唐畫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內入	8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正日上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內賓	14상	(각 17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入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諸臣	上床 7상
		中床 6상	(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正日中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頒賜下床 3상	(각 14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正日下床 (高足磁器/黑漆圓盤)	(戶曹)		
		(2월) 廚院內熟設所	慈慶殿 正日進別行果	大殿	進御別行果	30기	鍮器	工曹	
							磁器	本院	
饌案左右設挾案	尙方								
內進獻	別行果			(20기)	饌品器數器皿 並同進御饌案 (鍮器/磁器)	(工曹/本院)			
					朱漆大圓盤	戶曹			
大殿	進御味數 (七味)			각 7기	鍮器	工曹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鹽水			1기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御小膳			1기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進御大膳			2기	盤器 同小膳 (磁器/朱漆小圓盤)	(本院/戶曹)			
進湯	1기			磁器	本院				
				朱漆小圓盤	戶曹				

	世子宮 世子嬪宮	進饅頭	1기		盤器 同進湯 (磁器/朱漆小圓盤)	(本院 /戶曹)			
					進茶		銀茶罐	內下	
		進別行果	각 20기			朱漆小圓盤	戶曹		
						鎗器	工曹		
						磁器	本院		
						饌案 同設			
						鎗器	工曹		
						磁器	本院		
		進味數	각 5기			黑漆小圓盤 2坐	戶曹		
						磁器	本院		
		進湯	각 1기			黑漆小圓盤 2坐	戶曹		
						磁器	本院		
		進饅頭	각 1기			盤器 同進湯 (磁器/黑漆小圓盤)	(本院 /戶曹)		
						進茶		銀茶罐	內下
	明溫公主	別行果 1상	15기		黑漆小圓盤 2坐	戶曹			
					鎗器	工曹			
					磁器	本院			
	慈慶殿 翌日會酌 進味數	世子宮	進味數	5기	盤器 與正日同 (鎗器/磁器/黑漆小圓盤)	(工曹/本 院/戶曹)			
						進湯	1기	盤器 與正日同 (磁器/黑漆小圓盤)	(本院 /戶曹)
						進饅頭	1기		(本院 /戶曹)
(6월) 內熟設 所	慈慶殿 進饌	大殿	進御饌案	26기	唐畫器, 鎗樑匙	內下			
					朱漆饌案	尙方			
		內進獻	饌案	19기		甲燻磁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大殿	進御味數	3기		唐畫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進湯	1기			唐畫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進饅頭	1기			盤器 同進湯(唐畫器/黑漆小圓盤)	(內下 /戶曹)				

		世子宮	進饌案	17기	唐畫器	內下
					黑漆饌案	尙方
			進味數	3기	唐畫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進湯	1기	唐畫器	內下
					黑漆小圓盤	戶曹
			進饅頭	1기	盤器	(內下
					同進湯(唐畫器/黑漆小圓盤)	/戶曹)
		世子嬪宮	進饌案	15기	甲燔磁器	內下
					黑漆大圓盤	戶曹
		元孫宮	進饌案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世子嬪宮饌案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明溫公主 福溫公主 德溫公主	饌床 各 1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元孫宮饌案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淑善翁主	饌床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公主饌床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淑儀朴氏	饌床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翁主饌床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清瑾縣主	頒賜饌床	15기	高足磁器	(戶曹)		
			黑漆中圓盤	戶曹		
內入	上床 4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淑儀床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中床 12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縣主床 (高足磁器/黑漆中圓盤)	(戶曹)		
	下床 2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中床而少低排 (高足磁器/黑漆中圓盤)	(戶曹)		
內外宗親 儀賓戚臣	頒賜床中 床 14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入上床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1848년 진찬의례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慈慶殿 夜進饌	儀軌廳 堂上郎廳	頒賜宴床 中床 1상	(15기)	器數饌品盤器床花 並同內入上床 (甲燔磁器/黑漆大圓盤)	(內下 /戶曹)
		大殿	進御饌案	15기	唐畫器	內下
					饌案 仍用(朱漆饌案)	(尙方)
			進御味數	3기	唐畫器	內下
					朱漆大圓盤	戶曹
			進湯	1기	唐畫器	內下
					朱漆小圓盤	戶曹
		世子宮	進饌案	13기	唐畫器	內下
					饌案 仍用(黑漆饌案)	(尙方)
		進湯	1기	盤器 同進湯 (唐畫器/黑漆小圓盤)	(內下 /戶曹)	

## 참고문헌

### 1. 사료

- 『己丑進饌儀軌』  
『戊申進饌儀軌』  
『戊子進爵儀軌』  
『五洲衍文長箋散稿』  
『林園經濟志』  
『慈慶殿進爵定例儀軌』

###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배항섭,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2002.  
  
耿寶昌, 『明清瓷器鑑定』, 紫禁城出版社, 1993.  
廣東省博物館, 『牽星過洋-萬曆時代的海貿傳奇』, 2015.  
北京市文物研究所 編著, 『毛家灣-明代瓷器坑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7.  
馮小琦·陳潤民, 『明清青花瓷器-故宮博物院藏瓷賞析』, 文物出版社, 2000.  
汪慶正, 『中國陶瓷全集14 清(上)』,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汪慶正, 『中國陶瓷全集15 清(下)』,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初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6.  
鴻禧美術館, 『景德鎮出土明宣德官窯瓷器』, 鴻禧藝術文教基金會, 1998.  
  
Evelyn S. Rawski&Jessica Rawson ed., *CHINA The Three Emperors 1662-1795,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5.

Sten Sjostrand and Sharipah Lok Lok Syed Idrus, *The Wanli Shipwreck and its Ceramic Cargo*, Kuala Lumpur: 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 2007.

### 3. 논문

- 김미경,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 \_\_\_\_\_,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 미술사』 33,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2009, 293~327쪽.
- 김은경, 「朝鮮後期 清代 瑤瑯瓷器 受容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8.
- \_\_\_\_\_, 「조선시대 유적 출토 明代 자기에 대한 몇 가지 再考」, 『한국학연구』 7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5~41쪽.
- 김중태, 「궁궐 공간 표현 용어의 가변성-왕의 사적 공간 '대내'와 '자내'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8, 국립고궁박물관, 2015, 8~38쪽.
- 박정민, 「조선 전기 한양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소비상황 연구」, 『야외고고학』 17, 한국문화유산협회, 2013, 31~59쪽.
- 송인희,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방고(倣古)풍의 영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보상화당초문 병>을 중심으로」, 『세밀함으로 읽는 한국미술』, 삼성미술관 리움, 2015, 64~79쪽.
-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안대회, 「조선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65~96쪽.
- 이아름·이은주, 「1828년과 1848년 순원왕후의 진작기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85, 2018, 247~276쪽.
- 이종민,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중앙사론』 3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2, 279~321쪽.
- 이효정, 「15-16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명대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70, 한국미술사학회, 2011, 141~142쪽.

- 장남원,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조선후기 玩物 陶瓷」, 『미술사학보』 39, 미술사학연구회, 2012, 132~163쪽.
- 장진성, 「조선후기 고동서화 수집열기 성격-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사회평론, 2004, 154~203쪽.
- \_\_\_\_\_, 「조선후기 士人風俗畫와 餘暇文化」,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261~291쪽.
- 전승창,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미술사학연구』 264, 한국미술사학회, 2009, 47~48쪽.
-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 본 연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5.
- 조경아, 「순조대 효명세자睿製 呈才·예제'의 범주 및 정재 창작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 1, 한국무용사학회, 2003, 17~38쪽.
- \_\_\_\_\_, 「純祖代 呈才 創作樣相-중국 문헌의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 31, 한국음악사학회, 2003, 273~302쪽.
- 최경화, 「18-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미술사논단』 29, 한국미술연구소, 2009, 197~222쪽.
- \_\_\_\_\_,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4.
- 江建新, 「简论明早期瓷器及相关问题」, 『景德镇陶瓷考古研究』, 科學出版社, 2013, 155~178쪽.
- 徐湖平, 「瓷窑可验文明之象-概述中国清代官窑瓷器」, 『中國清代官窑瓷器』, 上海文化出版社, 2003, 21쪽.
- 余佩瑾, 「別有新意-以乾隆官窯的創新爲例」, 『乾隆皇帝的文化大業』, 國立故宮博物院, 2002, 283~284쪽.
- \_\_\_\_\_, 「品鑑之趣-十八世紀的陶瓷圖冊及其相關的問題」, 『故宮學術季刊』 22卷2期, 國立故宮博物院, 2004, 144~149쪽.
- \_\_\_\_\_, 「乾隆皇帝的古陶瓷鑑賞」, 『得佳趣-乾隆皇帝的陶瓷品味』, 國立故宮博物院, 2012, 14~40쪽.

---

**Abstract**

CHINESE VASE (DANGHWAJUN) IN THE ROYAL BANQUET OF  
JOSEON DYNASTY, 1848: THE SIGNIFICANCE OF ITS USE IN  
THE ANALYSIS OF THE ROYAL PROTOCOLS (UIGWE)

SONG INHEE (SONG, IN HE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a new, distinguishing phenomenon emerged in the royal banquets of the Joseon dynasty. While the reformation of music and dance performances in 1828 exemplifies the efforts to strengthen the monarch authority, the gradual change in the use of utensils has also been identified through the royal protocols of the early 19th century.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the usage of Chinese porcelain expanded from table-utensils to feast hall decorations and it became evident from the banquet in 1848.

Since their first appearance only as part of the newly introduced court dances in 1828, Chinese flower vases, recorded as Danghwajun, were placed in a pair at center stage of the banquet in 1848. Previous studies identified them merely as an eye-catching object of the sumptuous feast and primarily focused on the stylistic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protocols of royal banquets around the time. However, Danghwajun in 1848 requires an in-depth investigation of its usage and style, as this Chinese vase replaced the blue-and-white porcelain jar with dragon design which had long been a symbol of regal authority in the royal ceremonies of the Joseon dynasty.

By scrutinizing relevant accounts in the royal protocols,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surrounding the appearance of Danghwajun as major part of the royal decoration in 1848. Stylistic analysis of the design aims to appreciate its value in the complex ceramic culture of the time. In doing so, this paper illuminates the significance of Danghwajun connoting the attitude of the royal house toward the items for their high-ranking events and furth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burgeoning material culture in Joseon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Key Words : Joseon royal banquet, White porcelain, Chinese ceramics, Imported ceramics, Blue-and-white jar with dragon design, Flower and arabesque design, Royal kiln, Official kiln, Material culture